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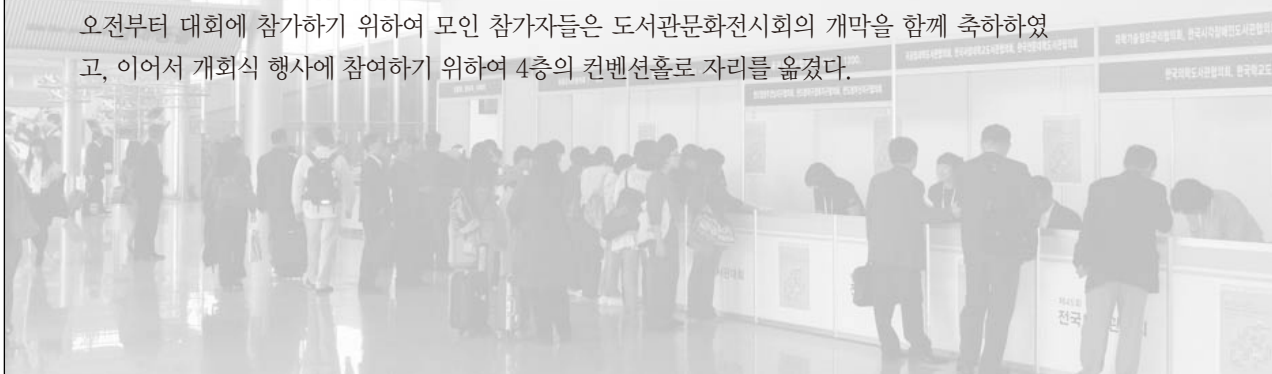
① 결과보고

빛고를 광주를 환하게 밝힌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는 작년에 이어 우리 협회와 산하 12개 협의회(9개 부회 및 3개 지구협의회)가 공동주최하여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전 도서관계의 행사로 개최되었다. 각 관종별 도서관에 종사하고 있는 도서관인은 물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회 및 전문단체, 도서관 관련기업 관계자, 문헌정보학자와 학생 등 약 2,200여명이 참석하여 10월 8일과 9일 양일간의 학술대회와 전시회, 10일 광주광역시 도서관 견학 및 문화체험 등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대회개최지인 광주광역시와 함께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도서관정책 및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정부부처가 공동 후원하여 더욱 의미있는 행사이기도 했다.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 개막행사

10월 8일(수) 개회식에 앞서 김대중컨벤션센터 208호에서 한국도서관협회장 초청 오찬이 있었다. 이날 오찬에는 한상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성남기 국립중앙도서관장, 정동열 한국문헌정보학회장, 박주호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진흥과장,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등이 참석하여 도서관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도서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이후 1층 전시장 앞에서 대회 개회식에 앞서 도서관문화전시회 테이프커팅식이 개최되었다. 오전부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모인 참가자들은 도서관문화전시회의 개막을 함께 축하하였고, 이어서 개회식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4층의 컨벤션홀로 자리를 옮겼다.



개회식장은 이번 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된 광주광역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으로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국악가요인 ‘아리요’, ‘배뛰워라’, 그리고 모듬북 협주곡 ‘타’ 등의 노래와 연주는 참가자들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으며, 축하공연이 진행되는 가운데 컨벤션홀은 그야말로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메워졌다.

우리협회 이현주 회원지원부장의 사회로, 김태승 협회장의 개회사, 최종만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의 환영사,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격려사, 우승구 광주광역시 부교육감의 축사로 이어진 개회식은 축하공연으로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도서관계 및 정부부처의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도서관계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어서 3시부터 전 도서관인의 “만남의 시간”인 다과회가 준비되었다. 광주광역시에서 후원한 다과회는 우리협회 이용훈 사업진흥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종만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의 인사말, 김장실 차관의 축사, 신기남 우리협회 명예회장의 축사, 한상완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의 건배사로 시작되었다.

풍성한 남도 인심을 보여주듯 맛있는 음식이 넉넉하게 준비되었으며, 지역인사들의 참여 속에 대회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도서관인들의 마음과 미각을 기쁘게 했고, 도서관인들은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갖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 전국도서관대회를 어떻게 알차게 보낼 것인가 준비하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도서관인들의 적극적인 학술행사, 전시회 참여

이번 대회에는 세미나,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포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준비된 43개 세션의 학술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비롯하여, 도서관인들의 연구 및 사례논문 12편이 발표되었으며 각 도서관의 활동상을 홍보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포스터세션 등이 함께 진행되어 도서관인들의 지적 정보교류와 문화의, 풍성하면서도 알찬 장이었다. 특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전국 도서관인들이 모여 우리나라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 무엇보다도 2천명을 넘는 참가자들로, 역대 최다 참석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아침 일찍 시작되는 주제발표부터 대회 마지막 세미나까지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석으로 과거에 비해 한층 성숙하고 내실있는 대회가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일 등공신이였다.

전국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8일(수) 오후 4시부터, 9일(목) 오전 9시부터 진행된 학술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층과 4층으로 구분된 9곳의 회의실에서 씩씩이 진행된 주제발표, 세미나, 포럼, 라운드테이블, 워크숍에는 관심있는 주제를 찾아온 참가자들로 발디달 틈이 없었다.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과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국립장애인지원센터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과 과제들은 이번 전국도서관대회에서 토론주제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도서관인들은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다양한 질의를 함으로써 도서관계 발전을 위한 강렬한 열의를 보였다. 또한 우리 협회 전문위원회에서 주관한 “한국심진분류법(KDC) 제5판 발간에 관한 공청회” 및 “마음의 상처, 도서관에서 치유하다”,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등도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등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도서관인들의 열띤 참여 속에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도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기위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은 대회에 참가한 모든 도서관인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1층 전시장에 마련된 도서관문화전시회 및 포스터세션, 포스터전시 등에도 도서관 관련 새로운 정보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도서관문화전시회에는 약 43여개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도서관 관련 신기술 및 기자재 등을 전시하는 한편, 직지인쇄체험관, 디지털정보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도서관모델인 디브리리(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 소개,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도서관 및 독서관련 행사의 포스터 등이 특별전시되어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시회를 통한 도서관계 업체의 시설 및 시스템 파악 및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도서관인들의 관심은 여전하였으며, 특별시연회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소개를 하는 등의 부속 행사도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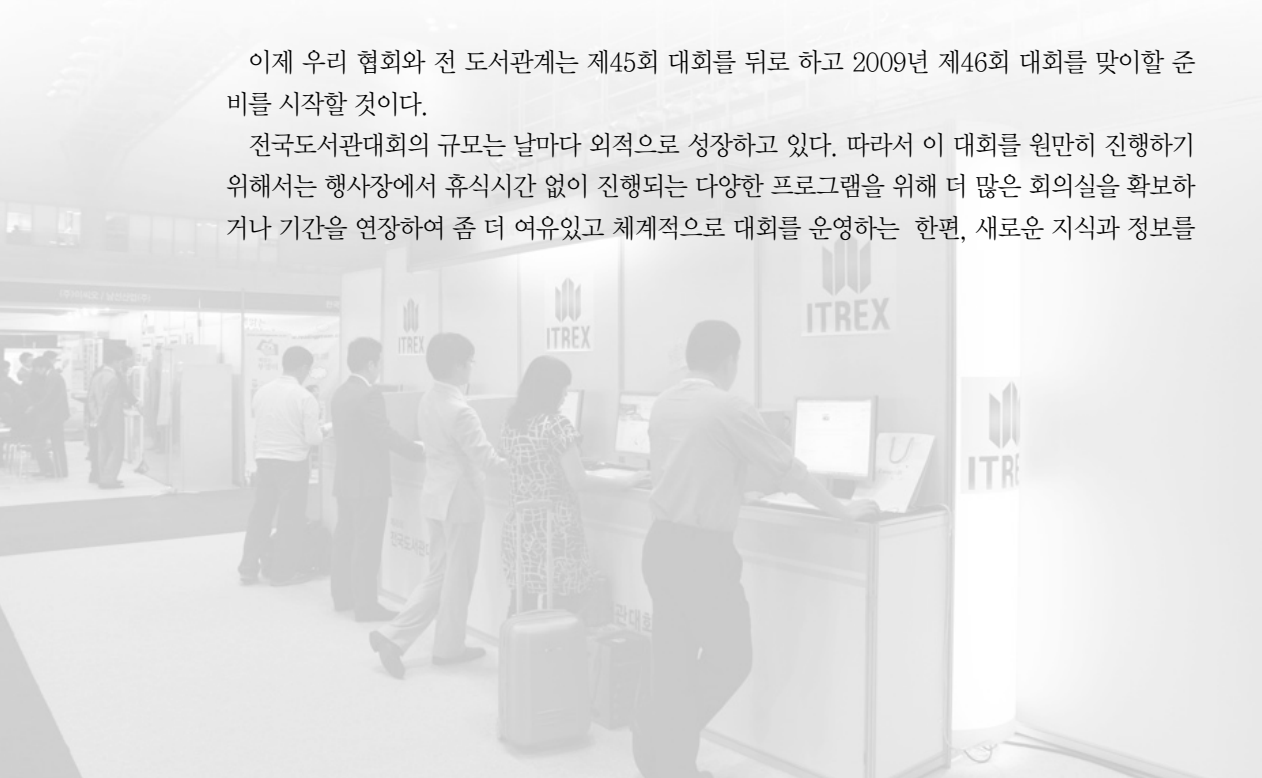
전국을 순회하는 도서관대회의 지역사회와의 교류

전국도서관대회는 매년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열리는 도서관계의 가장 큰 모임으로 전국의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도서관 정책과 발전의 지방분권에 기여하고 있으며, 개최도시에서는 전국도서관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번 개최지인 광주광역시에서도 제45회 대회를 위해 많은 협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었다.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빛고을 광주는 대회기간 중 비엔날레, 각종 축제 등이 진행되어 대회참가자들에게 학술행사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문화행사에도 참여할 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회참가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협회와 전 도서관계는 제45회 대회를 뒤로 하고 2009년 제46회 대회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전국도서관대회의 규모는 날마다 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회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사장에서 휴식시간 없이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더 많은 회의실을 확보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좀 더 여유있고 체계적으로 대회를 운영하는 한편,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더욱 활발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대회에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또한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며 전 도서관계의 발전과 결속을 다져온 이 대회가 명실상부한 도서관계 최대 행사로 정착하여 도서관이 그야말로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고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정부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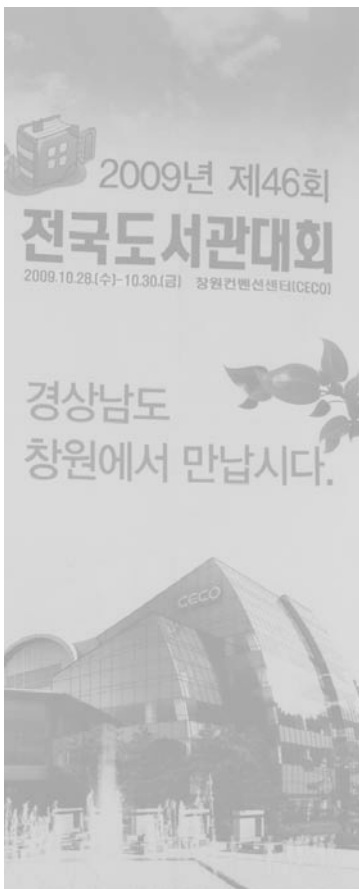
한편, 그동안 국내 도서관계만의 행사였던 이 대회를 앞으로는 외국의 도서관계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 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도록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과제로 갖는다.

제46회 전국도서관대회로 창원에서 만남시대!

이제 제45회 대회는 그 막을 내렸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지 않는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다.

도서관계의 역사 속에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고 도서관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비전과 과제를 살피며, 제46회 전국도서관대회는 더욱 성숙하고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 2009년 10월 28일 창원에서 전 도서관인들을 맞이할 것이다.



* 제46회 전국도서관대회는 2009년 10월 28일(수)~30일(금)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